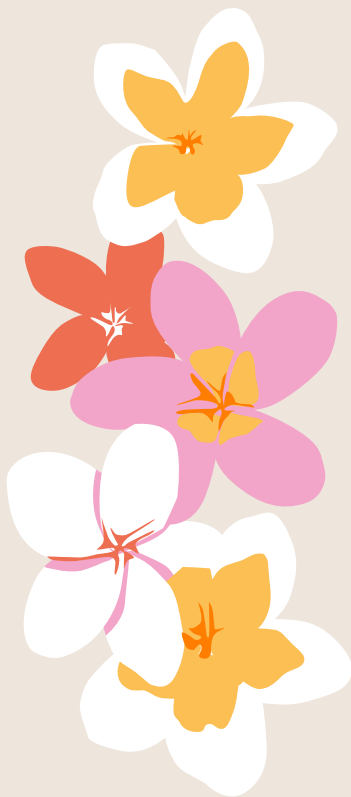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7. 9.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도자

성경 봉독

----- 창세기 22장 1~17절 -----

다 같이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 나눔 믿음의 시험 인 도 자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한 번씩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같이 시험을 받으면서도 왜 이처럼 편이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얼핏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때에는 모든 시험이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템테이션'

(temptation)' 곧 '유혹의 시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현재 이 세상에서만큼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며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왕 노릇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한 사단의 시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시험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테스트(test)' 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점검해 본다', 또는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성도의 태연한 신앙 상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종종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연단의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두 시험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즉, 시험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현실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깊은 갈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시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험들을 이기는 방법도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사단이 시험할 만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취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사단의 시험의 대표적인 경우로 선악과 나무 시험을 들 수 있는데, 이 시험에서 사단은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이용하여 시험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만일 하와가 그 유혹의 장소를 벗어나 있었다면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거짓의 원흉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나 자신의 취약점을 오히려 보강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소극적이거나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언젠가는 다시 통과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도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이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회피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한 갈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제1원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런 칭호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을 극복할 때 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시험을 극복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하게 되고, 더욱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 높

다 같 이

1. 최근 내가 겪은 '시험'은 사단의 유혹(Temptation)이었나요, 하나님의 연단(Test)이었나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나는 유혹(Temptation)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하나요? 도망치나요, 버텨보나요, 타협하나요?
3.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Test) 속에서 내가 배운 부분이나 자란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그 시험을 다시 겪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나요?
4.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기다리시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중 보 기 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 이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2.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3.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4.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5. 한국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시험의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앞에서는 담대히 반응하며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